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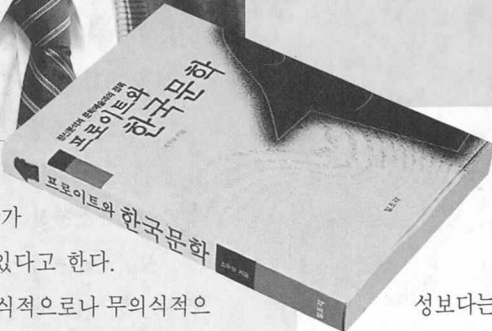


조두영 교수

정신분석학으로 여는 새로운 문예학의 지평

《프로이트와 한국문학》 펴낸 조두영 교수

“분석적 문예비평은 작품의 예술성이나 문학성보다는 작가정신을 분석하기 때문에 미적 한계가 있고, 문학의 신비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가설을 이해하면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문학을 양산하기 위해 분석적 문예비평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일조각/A5신/444면/18,000원

흔히 글 속에 작가의 삶이 녹아 있다고 한다.

이는 작가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밟고 있는 삶의 그림자를 글 속에 투영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견해는 다분히 경험주의 과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문학계에 경험주의 과학인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적 문예비평’이 도입된 것은 1957년 서울대 유석진 교수가 <이상의 정신세계>를 발표하면서부터. 이후 심리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왔는데, 그 중추에 조두영 교수(62, 서울의대, 정신과)가 있다.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문예비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을 이해한 다음 문학작품을 분석할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른 실정입니다.”

역사가 짧은 탓으로 성과물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간된 그의 《프로이트와 한국문학》(일조각)은 우리의 분석적 문예비평사의 전모를 보여주는 역저다. 이 책은 1978년 그가 처음 지상에 발표한 <이상의 처녀작 <12월 12일> 분석>을 비롯해 손창섭의 소설, 영화 <서편제>, 김동인의 소설, 그리고 전래동요와 고전소설 등을 분석한 논문을 실었다.

“분석적 문예비평은 작품의 예술성이나 문학

성보다는 작가정신을 분석하기 때문에 미적 한계가 있고, 문학의 신비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가설을 이해하면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뒤 작품분석에 들어간다. 작품분석의 과정도 특이하다. 먼저 작가의 인간사를 통해 그의 정신세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결국 작가의 삶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됐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방법은 이상에 대한 글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상의 어린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작가에게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에 대한 평가는 예외인듯 합니다. 이상의 작품 속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20대의 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가 요절했기 때문일까, 우리 문학계가 그를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적 문예비평은 작가의 인간사를 철저히 파헤치는 특유의 냉혹한 분석방법 때문에 작가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자

는 대부분 망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는 이청준씨 등 생존 작가를 많이 분석했다. 그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그는 우리 작가와 문예비평가들에게 분석적 문예비평의 효용성을 설득하는 작업도 열성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문학계는 분석적 문예비평을 폄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작가와 비평가들은 스스로 정신분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알고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우리 작가와 비평가들도 정신분석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좀더 좋은 문학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을 알기 위해 정신분석을 자주 받았다. 자신을 거울 삼아 환자를 이해하고, 문학작품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한국정신분석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조만간 같이 활동해온 학회 회원들의 글을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우리 문예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그가 쏟은 땀이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 오원진 기자